

대강단에  
바란다

# 대학생 학부모로서 기대하는 대학의 변화

강소연 | 연세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책임연구원

작년에 큰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나도 대학생 학부모가 되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아이가 기대했던 것은 교과서와 암기 위주의 고등학교 수업에서 벗어나 교수님의 감동적 강의, 다양한 경험과 관심을 가진 선배들과의 토론, 선진화된 실험실 환경 등이었다. 그러나 막상 고등학교 보다는 못한 실험실 환경, 교과서 위주의 강의, 매주 마다 제출해야 하는 실험보고서, 한 학기에 4-5회씩 실시되는 시험과 조별과제 등 시험과 보고서에 얽매어 한 학기를 끝내면서 이것이 그렇게 기대하던 대학 생활인지 매우 실망스러워 했다.

요즘은 많은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진국 대학 경험을 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의 질과 비교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 굳이 외국을 나가지 않더라도 인터넷 환경에서 MIT의 Open Course Ware를 보면서 자신이 수강하는 교수님의 강의와 차이를 비교하기도 한다. 글로벌한 세계에서 우리 대학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30년 전 부모 세대들이 대학에 다닐 때에 비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의 기대수준은 훨씬 높아졌고 대학에 대한 만족도는 등록금 대비 높지 않다. 고등학교 때는 그나마 담임교사가 있어 학생들을 관리해 주지만 대학에서는 학생 스스로 참여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상황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다. 대학생활경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제 증대와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요구된다.

##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야

교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학의 교육목적이나 설립유형, 학문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교육, 연구, 봉사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명 대학일수록 교수들의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비중이 높아지면서 대학의 연구 경쟁력은 높아진 반면 대학교수들의 학부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실정이다. 교수평가가 대부분 연구업적으로 평가되고 교육업적은 일정 시간의 수업만 하면 충족되는 상황에서 교수들의 학생들과의 만남이나 수업개선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 SCI 논문 순위는 세계 12위이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2009년 평가에서 우리의 대학교육 평가는 57개국 중 51위로 평가되었다.

E.L Boyer(1990)는 카네기 재단 보고서 'Scholarship Reconsidered Priorities of the professoriate'에서 대학이 학술적 연구만으로는 우수한 교육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발견과 통합, 응용과 교육의 균형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교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을 통합하고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배우게 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상호 의존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바로 교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결국 교수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에 정통해야 하며, 교수가 알고 있는 것과 학생들이 배우는 것 간의 교량 역할을 잘 하기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교수 본인이 지속적인 학습자가 되어 지식의 확장에 관심가질 필요가 있다. 교수의

핵심적인 본분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수들이 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대학은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아직도 대학의 대부분의 수업은 교과서 위주의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팀웍이나 창의성,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을 키울 수 있는 현장 및 경험 위주의 수업들이 많지 않다. 전공위주의 수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함께 세계를 탐색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당국은 융합적이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업 주제나 문제 개발, 수업 방법 개발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

### 「전공 공부외의 다양한 교과외 활동과 교수들의 따뜻한 관심 필요」

학생들에게 공부 이외의 시간에 보내는 활동에 대해 질문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터넷 게임이라는 응답이 의외로 많다. 많은 과제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로 게임이나 인터넷으로 해소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가 심각하다. 대학에서는 주로 학생들의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외에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하버드 대학의 Light(2001)교수는 대학 졸업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의실 안팎의

활동을 연결시키는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는 대학 생활의 경험은 강의실 안에서의 공부와 밖에서 얻은 것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이나 extra curriculum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다. 학생들의 관심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적성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미 유아기 때부터 조기교육을 시작했고 초, 중등학교 때에도 계속된 선행학습으로 자신과 주변인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특히 고등학교 때는 내신 성적이 입학의 당락을 결정하면서 성적으로 인해 피를 말리는 경험을 한다. 최근 취직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대학에서도 학점 관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 이상으로 학점의 노예가 되어 있다. 학기말이 되면 자신의 학점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학점 수정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현실이다. 대학마다 유명인들의 강연이나 학습전략, 진로탐색, 상담, 동아리 활동 등의 프로그램들이 일부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즐길만한 여유가 없다.

최근 카이스트 학생의 연이은 자살이 우리 사회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우수한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였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만약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이해

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자신을 지지해주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할 수 있는 선배와 동료들이 주변에 많았다면 그들은 쉽게 생명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학들이 학생들을 경쟁의 장에 내몰기 보다는 좀 더 학생들의 꿈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민을 함께 털어 놓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들과 함께 꿈을 꾸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교수, 선배 멘토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성공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생에서 겪게 될 실패를 극복할 힘을 키우고 도전하며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 「대학의 사회에 대한 책무성 증진과 교육의 질에 대한 보증

대학은 사회발전의 핵심 원동력이다. 대학은 사회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전문 인력과 지성인들을 양성하는 곳이다.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대학도 세계적인 무한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우리의 대학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대학들도 우수 인력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은 국가와 국민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적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가가는 정책적 차원에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사회, 기업에게 대학교육의 질에 대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확립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을 판단하는데 교육기관의 양적 인프라만으로 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의 교육경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옛날 명성에 의존해 학교를 선택하며 과거의 명문대에 집착하는 것이다. 4년 동안의 교육경험을 통해 어떤 능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중심(outcome based)의 평가결과가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을 고용하는 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미 정보공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주로 대학의 양적 지표에 대한 정보이고 교육을 통해 개발된 졸업생의 역량은 알기 어렵다. 최근 의학, 공학, 경영학 분야에서 인증평가제도가 확산되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학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정보로는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책무성에 대한 국가수준의 평가체계가 정립되고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필자소개

강소연 | 연세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연세대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인간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 회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

## 「마치며

지금까지 우리의 대학은 제도와 교수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학생을 중심으로 두고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학생들 한 명 한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고민과 어려움에 관심 가져야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재능을 키워주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와 연결해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들이 사회에 나가 사람들과 또는 조직에서 소통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정교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이제 대학은 학생과 교수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학습지원은 물론 인성개발과 팀워크능력을 개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고민을 해결해주는 진정한 학습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한다.

요 저서 및 연구로는 『교육심리학』(공저), 학부모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연구, 문제중심학습 가이드북 개발, 교원의 합리적 평가를 위한 공학교육업적 평가지표 개발, 등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학부모 학교 참여, 문제중심학습, 대학인증평가 등이다.